

朴 洪奎 先生의 人間과 哲學

金 泰 吉
李 泰 秀

20 대의 젊은 시절부터 대학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하여 정년 퇴직에 이르기까지 교수직을 떠난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례히 “평생을 오로지 학문의 길에만 전념한 학자”라는 찬사를 보낸다. 그러한 찬사가 대체로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겠으나, 글자 그대로 ‘오로지 학문의 길에만 전념한 학자’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인간이란 오래 살다 보면 방황도 하고 한눈도 파는 것이 보통이다.

朴洪奎 선생은 그러나 한 번도 허물어짐이 없이 글자 그대로 철학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을 소수의 철저한 학자이다. 선생은 학자의 사명은 오로지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하여, 그 신념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며 꾸준히 살아 왔다. 우리 나라의 현실에 대한 철학자로서의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 현실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일에 조차도 시선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학문에만 몰두해 왔다.

서양의 古中世 哲學이 전공 분야로 알려진 선생은 先哲들이 남긴 古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古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올바른 학문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따라서 고전 독해에 필요한 어학 실력을 양성함이 학자가 되기 위해서 우선 해야 할 과제라고 확신하였고, 본인 자신도 회랍어와 라틴어를 포함한 여러가지 외국어에 통달하였다. 여러 외국어에 대해서 깊고 넓은 지식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박 홍규 선생은 우리나라 학계에 있어서 극히 보배로운 분이다.

학자에게 시간이란 언제나 부족할 정도로 소중하다. 학문에 대한 열성이 높은 박 홍규 선생은 시간의 귀중성에 대하여 남달리 예민하였고, 인색할 정도로 시간을 아끼는 가운데 세속적인 사고나 취미생활에는 무관심할 수 밖에 없었다. 자기 자신 또는 남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 별로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이 가까이서 본 인상이다. 그러나,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위해서는 규정된 시간에 구애하지 않고 해가 저무는 것도 모르고 열중하였다.

학문 특히 철학은 엄밀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 선생의 지론이다. 부정확한 의견을 참된 진리인 양 표명하는 것을 무책임한 짓이라고 몹시 싫어하였다. 따라서, 본인도 자기의 학문을 공적으로 발표하기를 매우 신중히 하였고, 완벽한 것만을 내놓으려는 자세로 일관하는 가운데, 학문적 연구가 많은데 비해서 발표된 저술은 매우 적은 편이다. 옛날에 회랍의 큰 철학자들이 그랬듯이, 선생은 제자들을 위한 강의를 통하여 주로 그의 사상을

피력하였다.

박 홍규선생의 학문적인 관심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의미의 形而上學에 집중되어 있다. 形而上學은 물론 경험적인 現實의 所與(data)를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세계에 관한 일차적인 사실정보의 제공능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그것은 實證科學의 일이다. 이 점은 선생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힘주어 강조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실증과학은 사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으며 항상 경험소여의 한 단면에 대한 특정한 가설을 출발점으로 삼고 일관된 설명체계를 구성하려 든다. 이 때 前提되는 가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 형이상학이다. 때문에 한 형이상학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명제들은 직접 경험적 소여에 의해 진위판명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증과학의 설명과의 整合性이라는 기준에 의해 전체적으로 옳고 그름의 판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생은 형이상학의 이름아래 전수되어온 재래의 모든 체계가 다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질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 중에는 애당초부터 실증과학과의 연관 같은 것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세계관의 정립을 시도하는 이론들도 적지 않다. 사실상 전 서양의 철학사에서 실증과학과의 연관하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형이상학체계는 몇개 소수의 類型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유형을 선생은 대체로 Platon, Aristoteles 등 희랍철학자들의 형이상학과 불란서의 Bergson의 형이상학으로 본다. 前者는 모든 學的인 설명의 근본을 形相的 原理의 세계에 설정하고서 출발하는 체계이고 後者는 動的인 機能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형상적인 것은 차라리 파생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체계이다. 선생은 강의에서 Lucretius, M. Aurelius, Cicero, Seneca 등 후기 고대의 사상가나, N. Hartmann, Max Scheler와 같은 독일의 현대사상가들을 다분적도 있으나, 재직시 대부분의 학기는 Platon, Aristoteles — 특히 Platon — 그리고 Bergson의 사상을 강의 주제로 택하였다. 희랍철학을 강의하면서는 형상중심의 사상이 서구의 실증과학이 서 있는 사상적 기반을 어떤 점에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가를 들어내주는 데에 비중을 두었으며, 항상 서구학문의 특성을 철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Platon과 Aristoteles의 사상의 이해가 필수불가결임을 강조했다. 한편 Bergson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의 저술이 형상 중심의 고전사상에 대한 代案을 가장 명료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물리학, 생물학 등 서구의 실증과학의 성과에 대해서 또 전혀 다른 입장에서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해석 때문이다. 특히 Bergson이 한 걸음 더 나가 서구의 실증과학의 원칙적인 한계까지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선생이 그의 철학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되고있다. 사실 선생의 주 전문분야는 알려진 바 대로 고대희랍철학이지만, Bergson이 Platon이나 Aristoteles 못지않게 선생의 사색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선생이 강의 중에 스스로의 생각을 피력할 때에도 즐겨 Bergson의인 언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선생의 설명을 음미해야 한다.

선생은 Platon과 Bergson의 철학에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치 큰 비중을 두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두 철인의 사상을 곧 時空을 초월한 진리체계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선생이 만일 時空을 초월한 진리체계라는 입장에서 두 철인의 사상에 접근했다면, 한때 Schola 학자들이 Aristoteles의 철학이 곧 만고불변의 진리만을 담은 것으로 숭상하여 그 철학내용을 교과서적인 체계로 정리해서 다루려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Platon이나 Bergson을 다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은 두 哲人의 저술이 무슨 불변의 보편적인 敎理를 내용으로 담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의 지점에 발언된 말로써 취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발언은 일단은 시간속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이다. 선생은 퇴임 기념강연에서 지난날 제시된 모든 철학이론들을 큰 맥락에서 보면 인간이란 생체가 세계에 적응해 나가면서 수행하게 되는 일종의 自己調節의 여러 형태들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철학체계도 진화의 여정에서 일어난 고유한 사건들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 선생은 평소에도 철학사를 일단은 고유명사적인 요소를 뺄 수 없는 사건들의 기록으로 보아야 하고, 그 때문에 철학사에 등장한 여러 철학이론들에 대해서도 사건으로서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연구태도를 지닐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해 왔다. Platon이나 Bergson의 철학에 비증을 두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실증과학과의 관련때문이었으나 그들의 전체적인 사상과 마찬가지로 實證科學자체도 사실은 인간의 역사에 나타난 自己調節 방식의 하나로 파악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선생은 철학연구에 있어서 역사적, 문헌학적 태도를 매우 중시한다. 그것은 바로 연구대상이 되는 이론의 고유성을 우선은 최대한도로 인정해야만 된다는 의견의 당연한 반영이다. 선생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성급히 무슨 역사를 꿰뚫어 성립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理論을 전제하고 철학사에 접근하는 태도이다. 아닌게 아니라 인간의 사유의 가능한 폭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미리부터 일정한 입장을 뚜렷이 하고 출발하는 것은 철학사연구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못 얻어내고 말게 할 태도이다.

물론 모든 것이 시간 속의 구체적인 사건의 발생 뿐이고, 추상적인 논리의 구조를 지닌 本質의 세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선생은 다만 구체적 발생을 떠난 본질의 논의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견해인 것이다. 가령 인간의 知性을 논함에도 Kant의 방식대로 애당초부터 초시간적인 본질적 구조를 논하는 것에는 그리 큰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보다는 구체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 속에서 지성활동이 어떻게 발생하고 전개되어 나가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일이 일단은 훨씬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선생은 오랜동안 불란서의 J. Piaget의 발생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철학적 인식론을 공부하는 것에 대신하기도 했던 것이다. 선생은 일반적으로 실증과학자들에게는 경험적 소여가 일차적 자료 노릇을 하듯이 철학자나 철학사가에게는 시간 속에 발생하는 사건이 일차적 자료 노릇을 한다고 늘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차적 자료에 대한 고려가 빈약한 철학을 강단철학이라고 칭하며 그런 철학의 중요성은 특정한 전문적인 철학인의 세계에서만 인정되는 협소한 것이라고 한다.

선생의 학문은 한마디로 사변을 멀리하고 구체적인 시간 속의 사실 즉 사건과의 관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그 특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들속에 지난날에 제시된 철학체계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든 철학사조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철학이론이 다 옳다는 식의 속류 역사주의적, 상대주의적 입장은 물론 아니나, 형이상학의 기본유형으로 형상중심의 사상과 기능중심의 사상처럼 서로 명백히 대립되는 철학을 공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들어나듯 多元主義的(pluralistic) 입장에 서 있음은 분명하다. 때문에 선생의 철학은 일사불란한 체계를 이룰 수가 없다. 마치 Platon의 철학처럼 선생의 철학도 근본적으로 Aporia의 철학인듯 싶다. 언젠가 선생은 철학의 기능은 무엇이 근본적인 모순인가를 들어내주는 데에서 끝이 날른지 모른다는 말씀을 한 것이 기억된다.

널리 알려진 업적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업적이 더 많은 朴洪奎 선생이 이제 停年을 맞이하여, 오래 봉직했던 서울대학의 교단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65세라는 나이는 철학자로서는 한창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연령이다. 부디 선생이 좋은 건강을 오래오래 유지하여, 자신의 철학을 더욱 심화하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도 더욱 많은 발자취를 남기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1984년 8월